광주의 미래 자동차산업밸리



제10부-자동차로 문화산업 일군다

독일 슈투트가르트 🕏

독일의 슈투트가 르트는 세계 최대 자동차 도시이 기도 하지만, 독일 내에서 손꼽는 관광도 시이기도 하다. 메르세데스 벤츠와 포르쉐 등 세 계 유명 브랜드 자동차 회사뿐만 아니라 대부분 자동차

관련 연관 업체들이 즐비해 자동차 산업도시로 명성이 자자하 다. 하지만, 잘 갖춰진 자동차산업 인프라에 다양한 자동차 관련 문화콘텐 츠와 아울렛 등이 생겨나면서 관광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다.이처럼 자동차와 문화, 쇼 핑 등의 다양한 매력 때문에 전 세계의 많은 자동차 마니아들과 관광객들이 슈투트가 르트를 찾는 이유다.

50~80년대 클래식카·오토바이 즐비

문

올드카 복원·구입·차 컨퍼런스…복합 테마관

쇼

명품 브랜드·독일 최대 아울렛 쇼핑

자동차 마니아 성지, 1석3조 관광지 됐다



슈투트가르트 뵈블링엔 외곽에 자리한 '모터월드'. 호텔과 클래식카에서부터 슈퍼카에 이르는 자동차 전시·판매장, 튜닝·정비업체 등이 입점해 있다.

◇자동차 마니아의 성지 '모터월드'= 슈투트가르트는 전 세계 자동차 마니아들 에게 '성지'(聖地)로 통한다. 세계 유명 브 랜드인 메르세데스 벤츠와 포르쉐 등 세계 유명 브랜드 완성차 업체 본사가 있어서만 은 아니다. 자동차의 과거와 미래를 모두 볼 수 있는 곳인데다, 50년대~80년대의 클래식·올드카에서부터 오토바이, 슈퍼 카에 이르기까지 모든 차량을 구입하고 수 리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.

특히 슈투트가르트 뵈블링엔(Boe→ blingen) 외곽에 자리한 '모터월드'(Mo→ tor World)는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지만, 자동차 마니아들에게는 명소로 꼽힌다.

자동차 판매, 정비, 복원 등 자동차 산업 기술 협업 중심지로 꼽히며, 자동차 문화 커 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.

애초 비행장 부지였지만, 현재는 5만m² 부지에 호텔과 30년 이상 된 클래식 카 (Classic Car) 상설 전시장, 클래식카 복 원 및 튜닝 공장, 전용 트랙, 자동차 컨퍼 런스를 위한 회의실 등을 갖춘 복합 테마 관이 들어서 있다. 또한, 국내에서 보기 드 문 벤틀리, 맥라렌, 페라리, 람보르기니, 마세라티 등 세계적 유명 모터 브랜드들도 입점해 있다.

별도의 입장료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구 경할 수 있는데, 특이한 점은 전시된 클래 식카들을 직접 타 볼 수 있고,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.

30년 이상 된 클래식카들이 단순 전시 상품이 아닌 운행이 가능한 상품이며, 이 러한 클래식카에 대한 정비와 수리 등이 가능하다. 따라서 모터월드 내에 자동차

'숨은 명소' 모터월드

차 수집ㆍ전시 공간 탈피 튜닝 업체 등 자발적 참여 '차 애프터마켓' 모델 제시

광주시, 문화콘텐츠 개발 친환경차 부품업체 협업 등 '모터월드' 벤치마킹 필요

정비와 수리, 튜닝 등의 기술은 단연 으뜸 으로 꼽히고 있다. 이 때문에 모터월드가 자동차 애프터마켓의 가장 훌륭한 모델로 꼽히고 있다.

단순히 자동차를 수집하던 장소가 지금 은 자동차 마니아와 부품 및 튜닝 업체 엔 지니어 등의 자발적인 모임을 통한 문화공 간으로 자리하고 있다. 특히 자동차 마니 아들과 엔지니어들의 단순 친목 모임이 아 닌 컨퍼런스를 통해 자동차 애프터마켓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, 기술 협업 등도 가 능케 하고 있는 장소가 됐다.

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에 나 서고 있는 광주시도 최근 광주지역 자동차 부품산업 연관 기업 42개사로 구성된 광주 자동차 애프터마켓 부품협의회를 구성, 애프터마켓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는 만큼 인프라 등은 크게 다르지만, 슈투트가르트

의 모터월드를 벤치마킹하는 방법도 있다. 이를 위해서는 광주시도 완성차 업체 유

치뿐만 아니라, 다양한 자동차 문화 콘텐 츠 개발과 친환경 자동차 부품업체 등이 협업할 수 있는 토대를 우선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.

◇자동차·문화·쇼핑이 아우러져 관광 도시로 우뚝=슈투트가르트는 자동차 산 업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생활을 누리면서 시내 중심가에 세계 주요 명품 브랜드 업체들이 입점해 있고, 인근 메칭 겐시에는 독일 최대 규모의 메칭겐 아울렛 (Metzingen outlet)이 들어서면서 쇼핑 을 위한 관광객들이 줄을 잇고 있다.

메칭겐 아울렛은 독일 3대 아울렛으로, 도시 전체가 아울렛이라는 느낌을 받을 정 도다.

세계 유명 자동차 회사의 발전상과 미래

전략 등 자동차 경향도 살펴보고, 다양한 자동차 관련 콘텐츠를 통해 자동차 문화 를 체험하고 쇼핑도 할 수 있는 '1석3조'를 누리려는 전 세계 관광객들로 매일 붐비 고 있다.

이러한 매력 때문에 전 세계의 많은 자 동차 마니아들과 관광객들이 슈투트가르 를 찾는 이유다. 특히 최근에는 중국 관광 객들이 크게 늘면서 향후 연간 관광객 방 문 인원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.

광주시도 기존의 기아차 광주공장을 기 반으로 한 자동차 관련 문화콘텐츠 개발과 한국 자동차의 미래를 엿 볼 수 있는 인프 라 구축, 전 세계 자동차 마니아 및 관광객 유입을 위한 아울렛 면세점 및 쇼핑몰 등 의 유치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.

> /글 사진=슈투트가르트 최권일기자 cki@kwangju.co.kr



뵈블링엔 '모터월드' 내부 한 켠에 마련된 맥라렌, 람보르기니 등 슈퍼카 전시장.



